



12년만의 노란 함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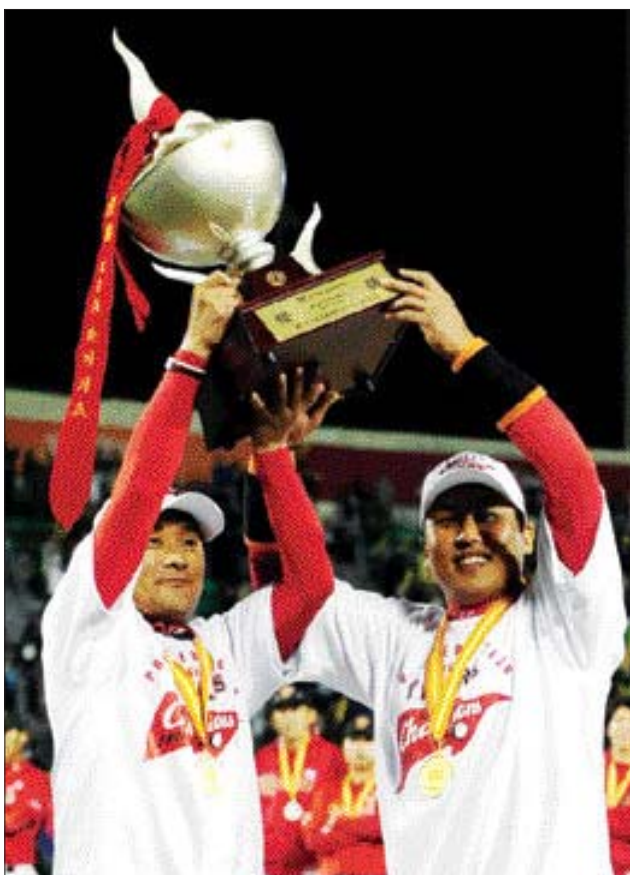
▲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7차전에서 6-5로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한 KIA 선수들이 팬들의 함성을 들으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.

# 환희... 감동... 신화가 된 호랑이들

우승 행가래

사진 = 최현배기자 choi@연합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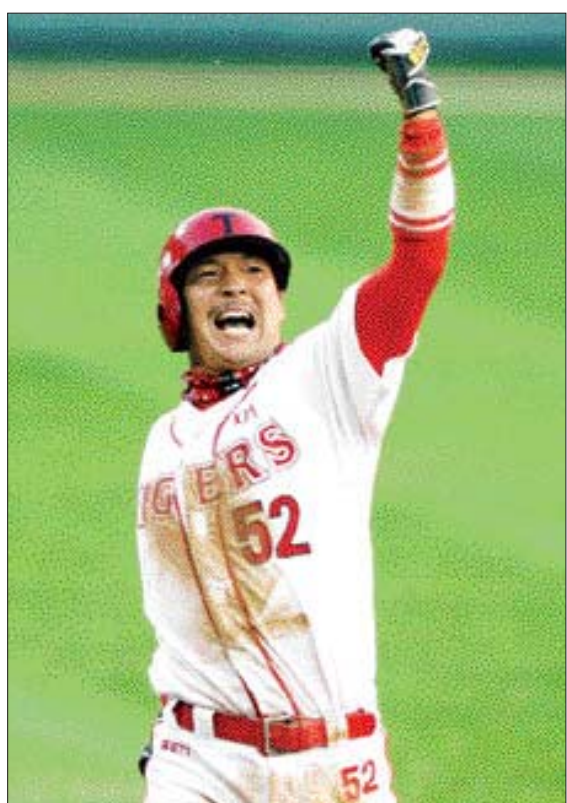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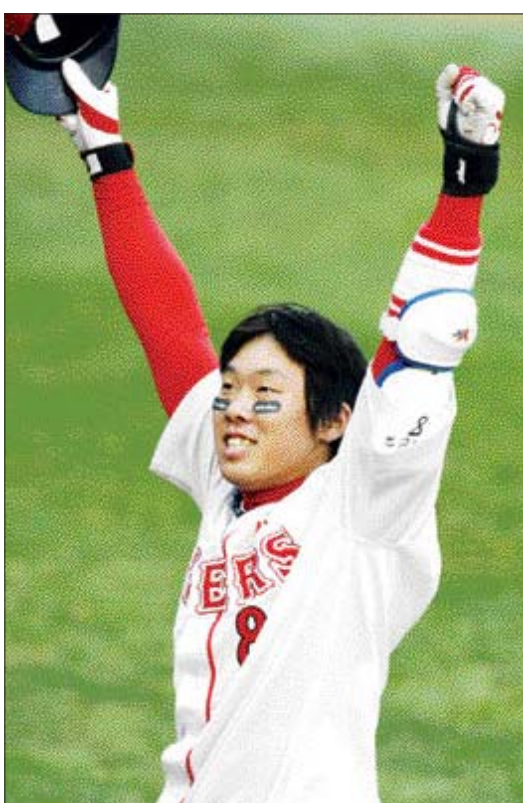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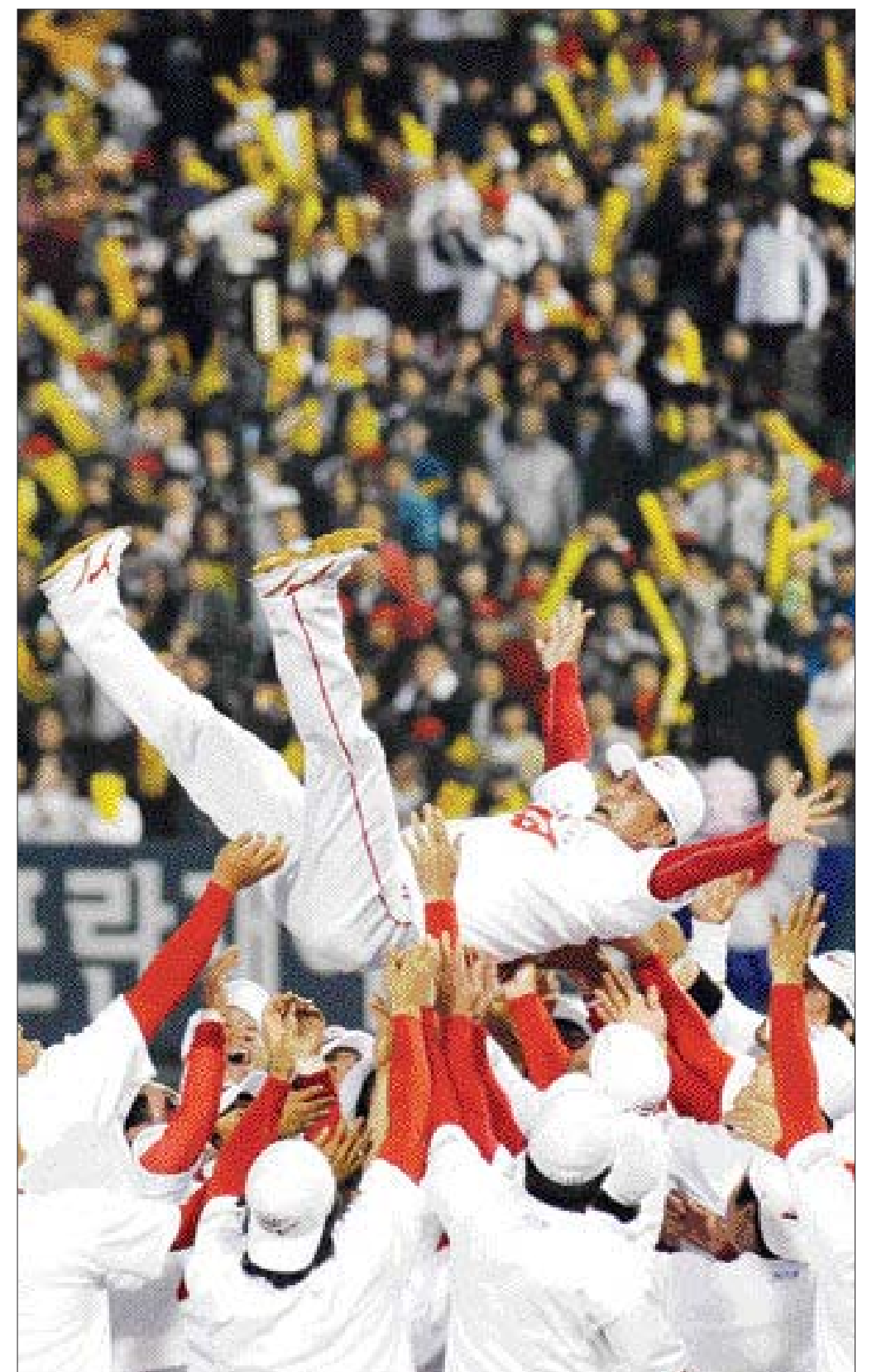
▼ 2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09 한국시리즈 7차전 KIA와 SK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둔 KIA 선수들이 조범현 감독을 행가래 치고 있다.



**영광의 우승컵** KIA 만형 이종범과 주장 김상훈이 24일 경기가 끝난 후 시상식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.



**웃고 울고** KIA 나지완이 9회말 끝내기 홈런을 터뜨린 후 조범현 감독과 열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.



**환희의 순간** 7차전 우승을 이끌었던 KIA의 짜릿한 승부처 7회, 4-5 1점차로 추격하는 솔로포를 터뜨린 안치홍(맨왼쪽), 우중간 3루타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최경환(가운데), 5-5 동점을 이루는 2루타를 터뜨린 김원섭(맨오른쪽)이 환호하고 있다.